부처도 예수도 참자기와 한통속

☞ 19면에서 계속

내 어머니가 더 소중한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자기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무르익어서 맛이 나는 거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것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거지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각자 내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부처님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지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똑바로 얘기해서 자신을 믿어라, 각자 내 자신을 믿으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면 각자 내 자신이지 그 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으면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 부처도 예수도 어느 생명 안 들어간 게 없네요.

그런데 이것저것 마음으로 갈라놓고 또 이것저것 자기 마음으로 지어놓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나오려고 울기도 하고, 지금 여기 현상세계에서 지옥, 천당을 다 왔다갔다하죠.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고, 한 생각이 바로 천당을 만들고, 한 생각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한 생각 잘해서 이름이 나고 빛이 나거든요. 그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갖다줘서 하는 겁니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뺏어 갑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 참 자기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잠재해 있는 원소 자체의, 실상의 주인공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니라' 이런 것이 거기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의식으로써 생각하는 것은 자라고 하고, 잠재해 있는 의식 자체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크다 작다 이런 논리가 없어요. 우리가 빼서 쓸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로 가면 부로 하나가 되고, 부가 자로 오면 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통이

육신은 그림자와 같은 시자
無의 세계 정신력이 自佛

은 짚신에다가 방울을 안 달아도 천도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레가 밟혀 죽을까봐 짚신에다가 방울을 달았다 합니다. '이 방을 소리를 들고 비켜나거라, 비켜나지 않는다면 살생이 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냥 걸었다는 얘깁니다, 주장자만 들고 휘휘 헤치면서. 그거는 왜냐?

한 가지는 자기만 알고 어떡하든지 그 제도를 깨지 않고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짐승도 둘이 아닐지언대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점을 집어 먹어 준다면 그 짐승의 모습은 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빌면서 천년이 가도 그때를 바라고 오는 짐승이 수 없이 많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식물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채소나 이런 것들도 모두 말을 합니다. '배가 고파' 하고요. 그래서 물을 퍼다가 주니까 얼마 안 있더니 그냥 살아납디다. 그런데 어떻게 동물만 생명이 있고 식물은 생명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식물을 먹었다고 해서 계율이 깨지지 않고, 동물을 먹으면 그 계율이 깨진다고 해선 안 됩니다. 그거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동물이 동물로 보이면 못 먹는 겁니다. 동물이 동물로 보이면 못 먹고, 동물을 자기와 같이 물로 보지 않게 되면 먹는 겁니다. 그것이 자격이 있고 없는 데 달려있는 거지 계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디 가든지 편안하고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걸림 없이 그냥 편안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편안하기만 해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겠지만,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 다는 그 말에 모든 공식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국의 절에 한국 스님네들이 갔더니 그 절의 스님께서 그러시더래요. 태국에서는 탁발을 하면 고기든 뭐든 가리지 않고 스님들께 정성껏 올리니까 시주님들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와서 공양을 한답니다. 그런게 한국에서 온 스님네들이 같이 탁발을 해 왔는데 고기가 들어있다고 먹지를 않으니까, 그 스님께서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스님들께서는 가고 오는 인연에 얽매여서 어떻게 부처를 이루려고 하십니까?"라고 했다고 하더래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허투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뜻이 그 속에 다 들어 있다고 봐야죠. 어느 나라는 이거를 먹고살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러는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생명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간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떠나서 가는 인연 잡지 않고 오는 인연 막지 않으면서 자유스럽게 사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깨우쳤다고 해서 그것이 다 환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야즐을 잡고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고 가는 분에 한해서는, 어떤 가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닭을 잡는다든가, 뭐 돼지를 잡는다든가, 소를 잡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관(觀)하고서 한다면 그 모습이 싹 없어질 수도 있고, 믿고 관하는 사람에 따라서 반만 벗겨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 소가 끌려가는 걸 보면, 그 큰 눈을 끔벅끔벅하고 갈 때 말입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 꼭 내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 같습디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둘이 아닌데, 저걸 도살장에 끌고 가서 죽인다면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죽이는 법이 없거든요. 애를 쓰고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두 가지를,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아프지 않게 죽게 한다, 그 모습을 해탈을 시킨다, 그리고 어디다가 그 종자를 심어서 싹이 나오게 한다, 이게 모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눈물겨운 얘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미생물까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되기 때문에 낙(樂)도 아니고 고(苦)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잘 잡수세요. 말을 잡숫지 말고 그 뜻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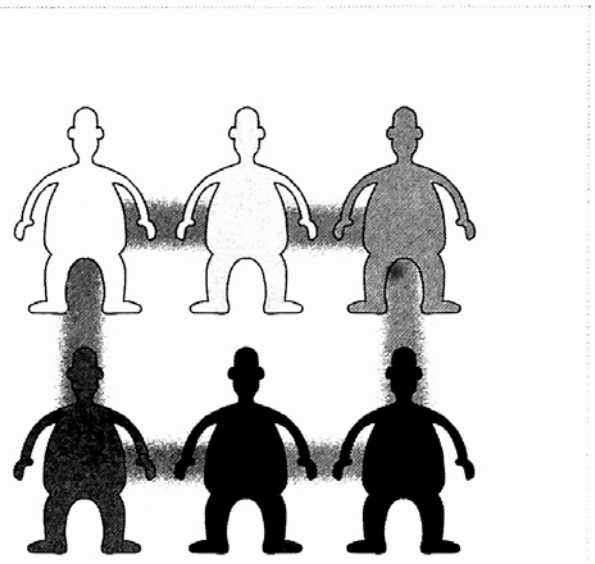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거센 비바람과 폭풍도 마음 다스리고 그릇 커지도록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인줄 알라"

한생각 내면 사회악 없을텐데

문 마음의 도리가 무한광대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이 사회, 경제, 도덕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공부하신 분들이 한생각을 낸다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해결되지 않고 자꾸 나빠만 지는지요?

답 사람이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개발해야 할 문제나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돌아가요. 아니,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시정하고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두 보고 듣고 자기가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변해 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다, 시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꾸 변해서 돌아가는 게 진리예요.

그런 경험도 다지지 않고 그냥 성장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는 걸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폭풍을 자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폭풍이 일어남으로써 그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는 반면에 '어이쿠, 이거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금 깨지고 부서지게 안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언젠가는 크게 곪아 터져서 잘못되면 그땐 건질 수도 없이 돼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고생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풍비박산을 내서 날려보기도 하고 그래야 그걸 경험 삼아 자기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또, 오래 한 사람은 앞에서 비켜나라 한다면, 지금도 머리가 둔하니까 비켜나라 한다고 해도 그것도 자연적으로 제 발로 나가게끔 돼 있는 거지 그거 억지로 남을 내쫓고 한다면 원한이 생겨서 나라의 식구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도 놓고, 무엇이 바뀌어져야 여러 사람에게 더 좋겠다 하면 그것도 그 자리에 진실하게 놓고 지켜본다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 바가 있으리라 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큰스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범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플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 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6-4422